광주시, '아트피크닉'으로 도심 속 문화소풍 간다

6월7일~10월25일 매주 토요일, 박물관·시청 야외광장서 열려

전통·현대·미래 테마 체험 구성… 영유아 가족 맞춤 콘텐츠 강화

광주시가 올해도 도심 속 특별한 소풍을 열어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체험을 선사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 오후 3시 광주역사박물관에서 '2025 아트피크닉'의 첫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아트피크닉'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가족 중심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혹서기를 제외한 6월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타임슬립 아트피크닉'을 주제로 과거·현재·미래 3개 테마 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거' 구역에서는 ▲전통 탈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한지 공예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현재' 구역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벽화 ▲스프레이 그래피티 ▲모루인형 만들기 등 현대적인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미래' 구역에서는 ▲디지털 드로잉 ▲증강현실(AR) 컬러링 ▲홀로그램 프로젝터 만들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구역을 모두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시간여행자 스탬프 미션'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촉감놀이 존 ▲친환경 블록놀이 존 등 맞춤형 체험공간도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문화예술을 쉽고 즐겁게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함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아트피크닉은 아이를 둔 가족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 행사"라며 "앞으로도 영유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가 일상인 도시' 광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전예매 돌입… 18% 할인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 주제로 8월30일 개막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권 사전예매가 시작됐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8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공존을 조망하는 포용디자인의 미래를 탐색한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 국제심포지엄, 특별프로젝트, 72시간 디자인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하고, 일상 속 배려와 연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꾸며진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의 혁신을 가져오는 사례를 담은 디자인 작품들, 지속가능성을 제안하는 국제디자인 사례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예매자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단체 방문객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할인을 마련, 교육 현장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람 요금은 성인 기준 현장판매는 1만6000원이며 사전예매를 하면 18% 가량 할인된 1만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사전예매 기준 각각 6000원과 3000원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미학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관람객들이 타인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의 방식을 디자인 속에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서 추억의 동화 만끽하세요"

10월 15~19일 닷새간 금남로·충장로 일원서 개최

'아시아 문화의 날' 신설·'충장 퍼레이드' 강화 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2004년 제1회 광주 충장로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22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주제는 '추억의 동화'이다.

동구는 올해 '추억의 동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추억의 ○○' 시리즈를 선보여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동 주민자치회·통장단·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를 진행, 최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부제는 '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로,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잠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가을, 충장로를 따라 은은한 빛을 머금고 깨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화가 갖는 보편적 가치와 개인의 추억을 연결해 향수와 상상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동화 속 신비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조명 등 다채로운 연출로 볼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축제에서는 이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보다 쉽고, 넓고,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축제 첫날인 10월 15일은 개막쇼 '추억의 동화'가 금남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했던 추억 속 동화를 되살려 환상이 가득한 새로운 동화를 펼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6일은 '아시아 문화의 날'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반영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시아 컬쳐 스트리트, 아시아 컬쳐 쇼 등이다.

이어 17일은 '가족의 날'로 충장 병아리 축제, 청소년 버스킹 등 전세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충장 발광나이트 '마스크 파티' 등이 관객과 만난다. 18일과 19일은 '행진의 날'이다. 5개 자치구 대동놀이, 초대형 바둑대회, 라이트업 퍼레이드, 불꽃놀이, 추억의 동화 대행진, 이색 자전거 레이싱 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추억의 동화 대행진에는 관내 13개 행정동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에 동화를 접목, 색다른 퍼레이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퍼레이드에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안무와 연출을 도울 예정이다. 축제의 대미는 불(화염)과 첨단기술(드론)을 융합한 특별한 파이어 드론쇼로 장식한다.

또한 닷새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ACC 하늘마당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 세계 16개국 32팀이 참가하는 국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는 총 4천만 원의 상금이 걸렸다.

/오철수 기자

전남도, 제2회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전국 공모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을 8월 2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아동문학부문(동시·동화)을 신설해 시·소설과 함께 총 3개 부문으로 확대한다.

공모는 (재)전남도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 해원, 상생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 대상이다. 지역·연령 등 자격 제한은 없다. 시는 5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200매 이내의 중·단편, 아동문학의 경우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 또는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응모하면 된다.

상금은 시 분야 최우수 1명 1천만 원, 우수 2명 각 500만 원, 소설 분야 최우수 2천만 원 1명, 우수 2명 각 500만 원이다.

아동문학 분야 최우수 1명 1천만 원, 우수 2명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응모는 8월 2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원고는 한글(HWP)파일을 이메일(peace1019@jncf.or.kr)로 제출해야 한다.

/전혜정 기자

무속의 본고장 진도에서 국내외 굿음악이 만나는 축제

국립남도국악원, '2025 굿음악축제'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굿음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3일간 국립남도국악원 일대에서 '2025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굿음악축제는 '아시아의 굿음악: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학술회의, 대담 및 부대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굿음악 공연팀을 초청하여, 굿음악의 세계화와 아시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해외 팀 공연은 일본 신화의 고장 미야지키현 다키치호 농촌마을에서 밤새 가무(歌舞)로 신을 모시는 일본 전통 마을 제사 의식인 〈다카치호 가구라〉이며, 6월 19일(목) 오후 7시에 축제의 첫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6월 20일(금) 오후 7시에는 베트남의 대표 무속의례인 〈렌동〉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공연팀은 총 3팀이며, 전통 무속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우리소리바라지의 〈입고출신〉, 동해안별신굿을 기반 창작공연인 박범태와 굿프렌즈의 〈고을마기〉,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국가무형유산 남해안별신굿보존회의 〈통영오귀새남굿〉이 본 축제에 참여하여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축제에서는 공연과 더불어 학술적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6월 19일에는 '아시아의 굿음악'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리며, 일본,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굿과 그 음악을 비교하며 그 문화적 특징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다.

진도/오재명 기자